

메시지 2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삶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성경: 엡 3:14-19, 아 1:2-3, 3:6, 4:7, 15, 6:4, 8:6-7, 계 19:7, 21:2

I.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이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이다 — 요 3:29, 마 25:6, 계 19:7, 21:2, 22:17.

- A. 역대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로맨스에 빠져 계셨다. 하나님은 배필을 얻으시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 계 22:17.
- B.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분이신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막 12:30, 엡 3:14-19.
- C.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이고, 아가는 이 로맨스의 요약본이다 — 아 1:2-3, 8:14.
 - 1. 성경은 로맨틱한 책이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로맨틱하게 되어야 한다 — 아 4:7.
 - 2. 만일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에 로맨스가 없다면, 이때 우리는 로맨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다 — 아 1:2-3.
 - 3. 전체적으로 성경은 신성한 구애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계심을 본다 — 고후 11:2.
- D. 우리가 하나님의 구애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분께 바로 반응하는 다정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바로 반응하는 다정한 사랑이 아가에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연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분 사이의 사랑의 그림을 본다 — 아 1:2-4, 고후 5:14-15, 요 14:21, 23.
 - 1. 아가의 주제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을 계시함”이다 — 아 1:2.
 - 2. 아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연인 사이의 혼인의 사랑을 시적 형식으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한다 — 아 2:4, 6:3, 7:11-12, 8:5-6, 14.

II. 아가에서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과 신성한 로맨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관계를 본다.

- A.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될 것이다 — 고후 5:14-15, 3:18.
- B. 아가에서 추구하는 이는 사랑스러운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 생명이 자라면서 계속 변화된다 — 아 1:2-3, 4하, 9, 12, 15, 2:2, 14, 3:6-7, 4:7, 12-15, 6:4, 10, 13상.
- C. 사람이 무엇이든 사랑하게 되면 그의 온 마음, 심지어 그의 온 존재가 그것에 고정되고 사로잡히며 점유된다 — 딤후 6:10-11, 딤후 3:2-4, 4:8, 10상, 딤후 1:8.
 - 1.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 —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고전 2:9 각주 1)

2.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고, 그분께 열어 드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첫째 지위를 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 — 마 26:6-13, 고후 3:16, 막 12:30, 골 1:18, 고전 6:17, 빌 1:20-21, 영한 동번 찬송가 477장 2절(한국복음서원 찬송가 366장 2절).

III.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한다 — 아 6:4상.

- A. 그리스도의 연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럽다.
- B.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성소와 그 보호처가 된다 — 비교 창 2:8-12, 18-24, 고전 3:9-12.
- C.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천을 체험하면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곧 하늘에 속한 성소의 내실 안에서 살고 있다 — 아 4:8.
- D.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가 된다 — 계 2:4, 요 14:20-21, 23, 엡 3:17.
 1.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 요일 4:19, 8, 16.
 2.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성한 로맨스의 모든 방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확대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 아 1:2-3, 2:14, 4:8, 6:4, 계 21:9-10.
- E.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자라 성숙하여 건축되는 것이다 — 엡 4:12-16.
 1.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된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 — 엡 4:16.
 2. 몸의 건축은 유기적인 것이며,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는 것에 달려 있다 — 엡 4:15.
 3.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엡 5:25-32)인데, 궁극적으로 이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지성소의 완결인 거룩한 성, 곧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21:2-3, 16, 22.

IV.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하여 슬람미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결혼을 위해 그분과 어울리도록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된 것을 상징한다 — 아 6:13.

- A.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곧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 준다 — 계 21:2, 22:17.
- B.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 아 8:5-6.